

# ‘연승 질주’ AI페퍼스, 안방서 단독 선두 노린다

내일 광주서 GS칼텍스 상대  
3승 1패 승점 8점 ‘공동 1위’  
외인 조이·시마무라 등 주목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안방에서 단독 선수들 향한 승점 사냥에 나선다.

AI페퍼스는 6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AI페퍼스는 지난 2일 흥국생명 배구단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9 25-18 25-20 25-19)으로 승리를 거뒀다. 직전 경기인 현대건설전에서도 3-0 승리를 거뒀던 AI페퍼스는 3승 1패 승점 8점을 기록, 창단 후 첫 리그 공동 1위에 올랐다.

더욱이 흥국생명전에서는 외국인 선수 조이가 무릎 부상을 입고 V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날 조이는 팀 최다득점인 16득점(공격성공률 45.45%)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또 아시아쿼터 시마무라가 13득점(공격성공률 57.89%), 이한비 역시 13득점(공격성공률 33.33%)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이외에 박정아가 10득점(공격성공률 30.34%)으로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팀 공격력은 그리 좋지 않다.

4일 경기 전 기준 AI페퍼스는 공격 부문 지표에서 공격종합 6위(시도 588회·성공 212회·성공률 36.05%), 오픈공격 6위(시도 260회·성공 75회·성공률 28.85%), 서브 7위(시도 315회·성공 9회·범실 36회·세트당 평균 0.6) 등 모두 리그 하위권이다.



지난 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19 25-18 25-19) 완승을 거둔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다만 시간차와 이동공격에서는 각각 리그 2위에 올랐다.

여기에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시마무라의 역할(시간차 3위·이동 2위)이 크다. 그는 4경기에서 59득점을 기록, 이 부문 리그 10위를 달리는 중이다. 이외에도 속공 2위, 발로킹 8위 등을 차지했다. 그가 공격과 수비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림이다.

이외에 박은서가 4경기에서 61득점을 올리며 이

부문 리그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팀 내에서 가장 득점이 많은 정도로 공격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이어 박정아(47득점), 이한비(46득점)가 힘을 보태는 중이다.

매년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 또한 단단해졌다.

AI페퍼스는 현재 리시브는 2위(시도 298회·정확 111회·리시브효율 31.54%)인데다, 디그 역시 2위(시도 422회·성공 358회·실패 64회·세트당 평균 23.87)에 이름을 올렸다.

여게 부상을 당한 고예림까지 복귀한다면 팀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상대인 GS칼텍스는 현재 2승 2패 승점 7로 리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3경기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GS칼텍스가 우위에 있다.

GS칼텍스는 득점과 공격 1위 실바(142득점·공격성공률 46.62%)가 주포로써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쿼터 레이나도 공격 2위(공격성공률 44.80%)에 오르며 공세를 더하는

중이다.

Setter 김지현 역시 매섭다. 그는 4경기에서 137회 세트 성공으로 세트당 평균 11.42를 기록,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AI페퍼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AI페퍼스가 GS칼텍스를 꺾고 3연승을 기록,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마지막 타이틀 경쟁’ KLPGA 투어 최종전 7일 개막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 개최

9일까지 서원힐스 컨트리클럽

방신실·홍정민·이예원 4승 조준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인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파주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올 시즌 상금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 등 총 60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승 트로피를 향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 시즌 KLPGA 개인 타이틀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정해진다.

직전 대회에서 유현조가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1위(681포인트)를 확정했으나 상금왕, 신인상, 최저타수상, 다승왕 등은 접전이다.

먼저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에 도전한다. 유현조가 이번 대회에서 10오버파 이하를 기록하면 2021시즌 장하나에 이어 60년대 최저타수상을 확정할 수 있다.

그는 또 올 시즌 상금 12억6985만2481만원을 기록하며 이 부문 3위를 달린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9600만원이 걸려있어서 상금 1위 홍정민(13억2682만3334원), 2위 노승희(13억1447만9754원)를 제치고 상금 순위 1위에 오를 수 있다.

아울러 유현조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022년 김수지가 세운 역대 한 시즌 최고 대상 포인트(760포인트) 기록도 경신한다.

유현조는 “시즌 마지막이자 타이틀이 많이 걸린 대회인 만큼, 우승을 목표로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홍정민 역시 “다른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플레이로 마지막 대회



방신실

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홍정민과 함께 나란히 3승을 기록 중인 방신실과 이예원은 단독 다승왕을 노린다.

방신실은 “좋은 과정 속에서 원하는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고 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예원도 “마지막 대회인 만큼 단독 다승왕과 10억 돌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인상의 주인공도 이번 대회에서 정해진다. 현재 서교림이 1354포인트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2위 김지현(1308포인트)과 3위 송은아(1240포인트) 또한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신인상 수상이 가능하다.

최근 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탄 서교림은 “지난주 좋은 흐름을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언급했다.

김지현 역시 “목표인 신인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예원

에쓰오일 챔피언십 우승자인 고지원은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3승 및 공동 다승왕에 도전한다.

고지원은 “2021시즌 이 대회에 아마추어로 출전해 아마추어 우승을 한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 “프로입장과 공식 연습일에 잘 준비해서 똑똑한 공략법을 짜는 데 집중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린 문정민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한편 이 대회는 2021시즌 대보 하우스디 오픈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해는 정규투어 최종전으로 확정되면서 대회명이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으로 변경됐다.

대회 코스는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기존 서원밸리에서 서원힐스로 바뀌었다. 서원힐스에서 KLPGA투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순천시 소속 유도팀이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2년 연속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동메달 등 총 3개 메달을 획득했다.

## 순천시청 유도팀, 전국유도대회서 두각

2년 연속 단체전 ‘금’…개인전 은·동메달 획득

순천시 소속 유도팀이 전국유도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2년 연속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동메달 등 총 3개 메달을 획득했다.

유도팀은 단체 결승전에서 경남도청을 3-2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는 70kg이하급 김지정 선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이예랑 선수를 이겨 은메달, 63kg이하급

신채원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회를 위해 휴일 없이 꾸준한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과 지도자의 훌륭한 가르침이 합쳐진 소중한 결과”라며 “앞으로 국내외 대회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 90개팀, 1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유도회 주최로 6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광주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지역교류전 개최

농구·핸드볼에 5000만원 국비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엘리트·생활체육 간 단체 구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지역교류전을 개최한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25년 단체 구기종목 지정스포츠클럽과 함께하는 전문선수부 지역교류전’ 신규사업에 선정,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교류전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민간(사

설)클럽 등과 함께 종목별로 열리는 대회로, 농구와 핸드볼 등 2개 종목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초·중학생들의 단체 구기종목 경기를 체험하고, 선수들과의 경기를 통해 기술 교류 및 멘토링(지도·조언)을 할 수 있어 통합형 성장과 우수인재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전 종목으로 선정된 농구는 다음 달 20~21일에 동강대학 체육관에서, 핸드볼은 다음 달 20일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초·중학생 38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전직 국가대표 또는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에게 배우는 전술 등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을 선사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